

# GLOBAL DEFENSE NEWS

**감시정찰** 미 육군, PNT 대안기술 연구 중

**함 정** 터키 해군, 신형 상륙함 전력증강 지속 추진

**방호·유도무기** 미 육군, 신형 단거리 방공체계 계약체결 추진 중

**전력지원체계** 중국, 육군용 신형 방한복 시험 중

전재인용시 출처가 '국방기술품질원'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
국방기술품질원 방산정보팀은 <Global Defense News>, 「국방과학기술정보」誌로 전 세계 국방 과학기술 정보를 제공합니다.

◎인터넷망

<http://www.dtaq.re.kr/ko/doc/technical.jsp>

◎국방망

<http://www.dtaq.mnd.mil/ko/doc/technical.jsp>

# 미 육군, PNT 대안기술 연구 중

## GLOBAL DEFENSE NEWS

지휘통제·통신  
감시정찰

기 동  
함 정  
항 공  
화 력

방호·유도무기  
전력지원체계

- 미국 육군 신속능력실(RCO)이 모의 작전환경에서 위치결정·항법·시간설정(PNT) 대안 기술을 시연하였음.
  - ※ RCO: Rapid Capability Office      ※ PNT: Positioning, Navigation, and Timing
  - 시연은 미 특수작전사령부의 협조 하에 도심 훈련센터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로 실시
  - 시연된 솔루션은 GPS 신호 저하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관성항법장치(INU)처럼 기술 성숙도가 높은 체계부터 시각적 항법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      ※ INU: Inertial Navigation Unit
- 러시아나 중국이 GPS 신호를 재밍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, 대부분의 전자장비가 PNT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.
  - 새로운 PNT 기술에 대한 연구는 타이탄(Titan) 사업과 병행하여 진행
    - 타이탄 사업은 GPS 위협 환경에서도 지상 기동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육군이 추진
  - PNT 대안기술 사업의 다음 단계에는 솔루션을 군사 플랫폼에 통합하고, EW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의 성숙도를 보다 촉진
    - 병사들의 인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EW 영역에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



PNT 대안 기술 시연

# 터키 해군, 신형 상륙함 전력증강 지속 추진

- 터키 해군이 최근 해상상태 5에서도 작전 가능한 2번째 신형 상륙함(LST)인 '산작타르함'을 취역하였음.
  - 이번에 취역한 2번째 신형 LST는 2016년 7월에 진수하였고 선도함은 2017년 4월에 취역(2척 모두 2011년 5월에 아나톨루 조선소와 계약) ※ LST: Landing Ship Tank
  - 함의 전투정보실(CIC)과 합동상륙 지휘통제 목적으로 지휘통제소 2곳 설치 ※ CIC: Combat Information Center
- 단일선체(mono hull)로 설계건조되었고 전장 139m, 배수량 7,200톤 이상으로 화물 1,200톤을 적재할 수 있음.
  - 적재 화물로는 전차 18대 혹은 인원수송장갑차 24대이며 항속거리는 만재상태에서 5,000NM(15kt 기준)
  - 아셀산사의 STAMP 원격조종무장장치, 팔랑스 근접방어무기체계, 채프 및 적외선기만기, 어뢰대항체계 탑재
  - 함수, 함미 및 좌현 3곳의 게이트와 길이 18m의 3단 접이식 함수램프를 통해 각종 장비 및 물자를 적재·하역할 수 있으며 상륙함 자체의 함수 흡수가 2m 미만이라 해안상륙 시 편리하고
  - 최고속도는 18kt
  - 상륙군 40명과 화물 8톤을 수송할 수 있는 상륙정 4척 탑재



산작타르함의 취역식

# 미 육군, 신형 단거리 방공체계 계약체결 추진 중

- 미국 육군이 금년 8월 경 신형 단거리 방공(SHORAD) 체계 도입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다.
  - 단거리 방공 솔루션은 기동부대에 UAV, 회전익, 고정익, 순항미사일 등에 대응하는 단거리 방공능력을 제공
    - ※ SHORAD: Short Range Air Defense
- 보잉사와 GDLS사는 공동으로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미사일과 화포를 장착하여 근접전투를 수행하는 공세적 및 방어용 화력을 구현할 계획임.
  - 스트라이커 기동 SHORAD 발사장비는 비용대비 효과적이고 기동성이 우수하며 생존성을 보유
  - 육군은 금년 8월까지 계약이 성사되어 2019년 봄까지 첫 번째 시제차량이 제작되기를 기대
- 육군은 신속 배치가 가능하도록 기존 재고 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중임.
  - 롱보우 헬파이어, JAGM 또는 스팅어미사일 등
    - ※ JAGM: Joint Air-to-Ground Missile (합동 공대지미사일)



스트라이커 장갑차

# 중국, 육군용 신형 방한복 시험 중

-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군수지원부가 최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콕토카이 지역에 소재한 신장군사령부 예하 국경방어중대에서 차세대 방한복 착용시험을 실시하였음.
  - 중국군 군사과학원 군보급품 엔지니어링·기술연구소 소속 전문가인 장 후아가 시험 데이터를 수집 중
  - 이번 착용시험에서는 20종 이상의 방한복을 시험했으며, 시험 중 발견된 결함은 추가 조치를 취해 개선 예정
- 차세대 방한복은 중국군의 과거 방한복과 비교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훈련 및 작전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더욱 전투중심으로 설계되었음.
  - 병사들이 수 시간 동안 야외 경계 및 정찰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보온성이 우수하고 전투작전 중 착용한 병사의 육체적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데 도움
  - 종전 방한복에 비해 가볍고 통기성이 우수하며, 더욱 따뜻하다는 게 실제 착용해 본 중대 병사들의 의견
  - 설상 위장복은 자외선 정찰에 대응 가능하다고 주장



중국군의 신형 설상 위장복